



aT, 中서 K-푸드 경쟁력 입증 전국당주상품교역회 참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전국당주상품교역회(CPDF)'에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905만달러 규모의 MOU와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1955년 시작돼 올해로 112회를 맞은 전국당주상품교역회는 중국 서부 내륙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등 52개국에서 2000여개의 식품·주류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43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aT는 중국 2선 시장 개척을 위해 이번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국내 수출기업 19개사와 1개 지자체가 참가해 인삼, 음료, 주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전통주-홍삼', '커피-스낵류' 등 대표 제품을 묶은 페어링 시식 행사는 참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베이징에 위치한 수입식품 전문 유통매장 제니왕의 대표 손계룡씨는 "한국식품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아 꾸준히 주목해왔다"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중국에서 통할만한 제품을 발견하고, 참가기업과 MOU까지 체결하게 돼 향후 협력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은 연안지역에 비해 한국식품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라며 "중국 내륙 주요 도시까지 K-푸드 수출을 확대해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2월 말 기준 K-푸드의 대 중국 수출액은 1억9777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국토부,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청년·고령자 주거공간 등 공급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공모는 7월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모두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요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불박이(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띄운다

광주TP·미래차진흥원기업 등 9곳 업무협약

기술개발 시험·평가 양산체계 등 협력 추진

광주시가 미래 신산업이자 신교통혁명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산업을 본격적으로 띄운다.

광주시는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 포럼' 개최와 함께 미래항공모빌리티 기업과 대학, 시험·인증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9개 기업·기관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토프모빌리티, ㈜다이어, 지에프텍㈜,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우주항공연구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이 9개 기업·기관이 참가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기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시험·평가 및 실증, 양산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AI), 미래차, 미래항공교통 산업이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산업 진출로 광주경제 그릇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에 대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발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완공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진흥센터를 거점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집적화해 핵심기술 개발, 기반시설 확장, 부품기업 역량강화, 업종 다각화(전환) 등을 지원하는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육성 전략 포럼'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업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육성전략 포럼'도 개최됐다. 광주시와 조인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김명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모빌리티연구팀장이 도심항공교통 새

로운 개념 정의와 시범운영 구역, 추진기반 마련 등 '도심항공교통법의 역할'을 소개했다.

또 동동희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 차장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체계적 관리 및 단계적 준비'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정찬영 ㈜토프모빌리티 대표는 '국

내 첫 전기비행기 사업화 추진계획과 광주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방안'을, 김광진 광주테크노파크 모빌리티산업센터 책임은 '빛그린산단 및 미래차국가산단 연계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미래형 양식산업 육성 572억 투입

친환경양식 생산기반·재해예방·유망품종 육성 등 30개 사업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57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 수산재해 피해 대응 및 질병 예방, 유망양식품종 집중 육성 등 3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총 19개 사업에 20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종자생산시설 개선 등으로 내실 있는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등 대규모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확대 조성한다.

어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부족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양식어장 자동화 장비

를 보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해남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사업이 해수부 공모에 선정, 인력 수급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전남도 대표 수산물인 김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육상채묘 및 냉동방 보관 시설과 스마트 종자 배양시설을 구축하고 어장환경 보호 및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한 신규 활성처리제 개발을 마무리해 김 양식 어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수산재해 피해 대응과 질병 예방을 위해 6개 사업에 303억원을 투입한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전국 최대 수준인 90%까지 지원하고, 액화산소 공급기, 치광막 등 대응장비

를 계속 보급한다.

시장성이 높은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63억 원을 지원한다. 새우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새우양식장에 유망미생물을 공급하고 유류수면을 활용한 유망 품종 양식어장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지역특화 품종인 꼬막 종자 살포와 조기, 바리류 등 고수온에 강한 어종의 종자 구입비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전환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굴 양식 방법 대비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 품종인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체굴 종자 생산 및 해수 살균시설을 구축,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전라품목 육성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경총, 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해소 '본격화'

종합지원책 추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전개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본격화 한다.

광주경총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중앙

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되 산업별 지원법위와 수준, 내용 등을 추가(PLUS) 지원, 주력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종합 지원책이다.

주요 사업은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도약장려금',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독려하는 '일자리 안착지원금', 근무환경 및 복지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선', 안정적 거주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비(월세) 지원', 근

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만 35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에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자리 안착지원금'은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취업한 근로자가 3·6개월 연속 시 각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기업당 최대 900만원(자부담 1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통해 기술사·휴게실·화장실·샤워실 등 근로자 복지시설 전반을 보강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스마트인재개발원, 교정시설 자격시험 지원

산인공 전남서부지사·장흥교도소와 협약체결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장흥교도소와 함께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인재개발원은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수용자들이 CBT(Computer-based test) 방식의 국가자격시험을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험 운영의 효

율성을 높이고, 수용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정하게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국가 인재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협약기관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수경 스마트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은 MDI 20만t 공장을 증설하고 정기명 여수시장과 회사 경영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금호미쓰이화학, 여수 공장 증설

60명 신규 고용...연 61만t MDI 생산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은 MDI(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지역민 60여명을 신규 고용했다고 6일 밝혔다.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은 MDI 20만t 공장을 증설하고 정기명 여수시장과 회사 경영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공장 증설로 MDI 생산 능력은 연간 61만t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일 공장 기준 국내 최대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광주 속련기술인 대축제’ 기능경기대회 팡파르

광주 속련기술인들의 축제인 광주기능경기대회가 7일부터 시작된다.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10개 경기장에서 금형 등 37개 직종, 324명의 선수가 실력을 겨룬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상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메달 수상자는 70

만원, 은메달 50만원, 동메달 30만원, 우수·장려상 수상자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직종별 1~3위 입상자는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1~3위, 우수상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대회에 지역대표로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1166회 로또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7000만원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4, 23, 25, 27, 29,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04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2803명으로 173만원씩을 받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8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45만6735명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0억723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

연합뉴스